

전남, 재해보험료 133억 내고 3억 받았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자연재해 거의 없어 보험금 지급액 적어...수협·타 지역 배만 불린 꼴

지역 특성 고려 단가 조정을...수협 “위험부담 높아 고액 책정 불가피”

최근 3년간 전남지역의 자연재해가 거의 없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액이 보험료에 턱없이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을 판매한 수협이 이 지역에서 큰 수익을 남기고 상대적으로 재해가 많은 타 지역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험료 책정과 지역어민들에게 수해가 끊기도록 미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전남도,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해 돛, 가리비, 송어 등 18개 품종에 대해 전남지역 1450여가가 국비 86억5200만원(운영비 포함)을 지원받아 지방비 및 자부담 46억5800만원을 합쳐 보험료로 133억

여원을 납부했다. 지방비 지원은 전남도에 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전남도와 각 시·군은 지난해 추경예산을 포함해 지방비 19억 원을 마련한 바 있다.

전남도는 가입 어가가 급증하고 있지만 예산은 부족해 전복 150만원 등 보험료 지원금액에 제한을 두면서 일부 어민은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가입 대상인 전남의 3312어가 가운데 1915어가만이 가입해 가입율은 57%다. 지방비 지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줄면서 다른 지역보다는 높은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올해도 최근까지 보험금 지급액은 납부 보험료의 30분의1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다. 태풍 3건, 강풍 1건, 대설 4건, 기타 5건 등의 재해가 발생해 완도 남치양식 어가가 410만원을 자부담한 뒤 1억4000만 원을 받는 등 7건에 2억9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을 뿐이다. 4개월이 남아 있지만 보험료를 초과할 만큼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3년 역시 국비 65억7600만원을 지원받아 지방비와 자부담 35억1900만원 등 100억9500만원의 보험료를 받은 수협은 지난해 82건에 66억3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2013년에도 보험료에 턱없이 못 미치는 13억4300만원의 보험금이 어민에게 돌아갔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험료 단가 조정과 함께 어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와 수협중앙회 측은 이와 관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경우 지급 액수 규모가 크고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고액의 보험료가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남해와 올해 자연재해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지난 2012년에는 오히려 수협이 큰 손해를 봤을 것”이라며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보험이기 때문에 다른 민간업체들이 아직 상품을 내놓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협 측은 “지난 2009년부터 적자를 보다가 지난해에서야 3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손해율이 높은 보험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감 브리핑

15개 사립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 40% 이하로

박혜자 의원

전국 15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최근 3년간 등록금이 올리면서 장학금 지급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설립 초기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50~70%를 기록했던 장학금 지급률은 대부분 40% 아래로 떨어졌다.

세정치민주연합 박혜자(광주 서구갑) 의원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5개 사립 로스쿨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등록금은 2012년 1845만여원에서 올해 1919만여원으로 74만여원 올랐다. 평균 장학금 지급률은 2012년 44.5%에서 2015년 현재 40.3%로 4.2%포인트 낮아졌다.

서울 소재 로스쿨의 경우 등록금은 3년간 평균 100만3000원 올랐고, 장학금 지급률은 4.2%포인트 감소했다. 지방 소재 학교들은 등록금이 26만여원 오르고 장학금 지급률은 2.9%포인트 떨어졌다.

등록금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중앙대로 3년 새 185만2000원이 올랐다. 장학금 지급률은 건국대가 18.8%포인트 감소로 폭이 가장 컸다.

박 의원은 “대학 측이 설립 초기 비싼 등록금 대안으로 높은 장학금 지급률을 홍보했지만 현재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돈소굴’의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등록금 인하, 장학금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수산물 생산 메카 전남...안전검사 장비가 없다

황주홍 의원

우리나라 어업 총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전남에 수산물 안전 검사 장비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장흥·영암·강진)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우리나라 어업 총생산량(원양업 제외)은 178만3982t으로 이 가운데 전남 생산량은 102만 8840t으로 전체 생산량의 57.7%를 차지,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러나 전남에는 수산물 안전성을 검사하는 장비가 단 한 대도 없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수산물은 생산단계에서 안전성 조사를 통해 중금속, 방사능, 식중독균 등의

허용 수치에 적합한 판정을 받아야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안전성 조사는 항생물질, 세균 등의 검출로 이뤄지는데 보통 한 어종에 7일 정도가 걸린다. 이처럼 안전성을 조사할 수 있는 장비가 전남에는 없어 수산물을 인건까지 태백로 보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전체 생산량의 10.1%를 차지하는 부산은 전체 86대 중 65.1%에 해당하는 56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황 의원은 “안전성 검사를 위해 전남은 인건까지 태백 등의 방법으로 보내야 하는데 생물의 특성상 가는 도중 세균 증식의 위험이 있다”면서 “이는 어민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만큼 전남에 안전성 검사 장비 보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형기자 golee@

F1·인천AG 등 국제대회 ‘마이너스 경제효과’

유기홍 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장밋빛 경제효과’를 꿈꾸며 경쟁적으로 유치했던 국제체육대회가 실제로는 ‘마이너스 경제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한 ‘국내 유치 국제체육경기대회의 개최비용 및 경제효과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0~2013년 포물러인(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

아드대회의 유치 비용은 애초 계획보다 7900억원 많았다. 이 증가분의 88.2%인 6967억원이 국고에서 충당됐다.

전남 영암에서 열린 F1은 유치 예상 비용이 7330억원이었으나, 유치 후 실제 지원된 사업비는 8752억원으로 총 1442억원 늘었다. 증가분 중 1203억원이 국비였다.

인천아시아게임의 총 사업비는 1조 8898억원에서 1조9967억원으로 약 107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국고 지원액은 2651억원에서 5931억원으로 3280억원이나 늘었다. 국고의 부담은 2211억원 줄고 국고 지원금만 늘어난 셈이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이들 대회는 손해만 떠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형기자 golee@

이산가족 상봉 시기 이견...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진통’

남측 “북 노동당 창건 70주년 10월 10일 이전” vs 북 “행사 준비 분주 10월 이후”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는 7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은 지난달 25일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사항(8·25 합의)에 대한 북측의 이행의지를 가능하는 첫 시험대로 평가된다.

이번 적십자 실무접촉은 우선적으로 판문점 남북 고위급접촉에서 합의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규모와 장소, 시기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측이 주장하는 금강산 상봉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하는 것이 서울 혹은 평양 소재 호텔에서 상봉 행사를 하는 것보다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설날 계기 이산가족 상봉도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뤄졌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도 작년 2월 상봉 때와 유사한 남측 100명, 북측 100명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될 예정인 금강산 면회소는 그 이상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 달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이산가족 상봉 시기를 정하는 문제에는 남북이 견해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 10일) 전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우려해 다음 달 10일 이전에 상봉 행사를 개최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은 노동당 창건 행사 준비를 이



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오른쪽 두번째)과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양측 대표단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로 다음 달 10일 이후에 상봉 행사를 하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우리 측이 제안하는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에 대해 북측은 난색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 우리 정부가 전면적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요구했을 때도 북측은 행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 그동안의 전례를 고려할 때 이산가족 서신 교환과 화상 상봉, 이산가

족 고향방문 등에 대해서도 북측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을 수 있다.

강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측은 (과거 남북관계) 분위기가 좋을 때도 수용 못 했는데, 지금처럼 막막했다가 숨통이 겨우 트인 상황에서 그 전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북측은 우리측이 제시하는 이산가족 상

봉 정례화와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 등은 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연계해 당국 회담에서 논의하는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측은 그런 부분을 적십자 실무접촉의 제로 올리는 것 자체에 반대할 것”이라며 “그런 제안은 금강산 관광 재개나 5·24 조치 해제 등과 연계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의료광고 심의필 제 141205-중-65758호

밝은광주안과 의원

진료내용

라식 라섹 ICL SMILE

LASIK LASEK 안내렌즈삽입술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

SMILE 수술이란?
라식수술시 만들게 되는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고, 2mm의 최소절편을 통해 각막을 제거하는 신개념 수술입니다. 라식수술로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최소화하고 각막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시력교정수술입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 빌딩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원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2015 漢字·漢文指導師資格

公認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171)	광주교육대학교(1271)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5. 9. 4(금) 09:10 (특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5. 9. 4(금) 14: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5. 9. 5(토) 09:10 (고급반)	·월요일 오후반 2015. 9. 7(월) 14:10 (중급반) ·월. 목. 02(반) 2015. 9. 7(월) 19:00 (특급반) ·목요일 오후반 2015. 9. 10(목) 14: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5. 9. 12(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5. 8. 3.(월)~9. 5.(토)	2015. 8. 3.(월)~9. 12.(토)
수업기간	2015. 9. 4.(금)~2016. 2. 13.(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5. 9. 7.(월)~2016. 2. 2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02(반) 18: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원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교과목 후 교육감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취득기회 부여)	·1.2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원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교과목 후 교육감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문 의:062)620-4243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